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 7개 문화시설이 2019 절기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각인시켰다.

전주한옥마을 품은 절기축제 성황

완판본문화관, '칠월칠석, 완판본 만나는 날' 개최
그리움·사랑·편지를 주제로 다채로운 즐길거리 제공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 7개 문화시설이 2019 절기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각인시켰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사업인 '2019 절기축제'가 지난 10일 전주완판본문화관이 마련한 '칠월칠석, 완판본 만나는 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번 만나는 칠월칠석(七夕, 8월 7일)을 맞아 그리움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오작교 절기축제가 펼쳐졌다. "그리움, 사랑, 편지, 전주의 기록문화유산 완판본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절기축제는 오후 3시 남천교에서 태조로까지 이어지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문을 열었다. 또한 기획전시 '완판본 한글편지, 언간독(諺簡讀)'의 해설체험과 한옥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한 전시 프로그램인 '완판본 판각 삼매경'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으며, '칠석에 띄우는 목판화 엽서' 시전지(詩箋紙), 편지지 인쇄 등의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한옥마을 주민 30여명이 만들어낸 참여전시 '완판본 판각 삼매경'이 시선을 끌었다. 이번 전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지역민이 참여한 만큼 그 의미가 크며, 절기축제 이후에도 한옥마을 곳곳에 걸릴 예정이다. 식후행사로는 특별공연으로 함곡마을과 연계한 전주한옥마을 마당놀이 '몸을 쫓는 사냥꾼'이 관람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됐다. 이외에도 문화시설 연계체험으로 △전주소리문화관 '관소리 춘향가 사랑가 대목' △전주부채문화관 '전주부채-완판본 만나는 날' △희명희문화관 '완판본, 소설 '혼불'을 만나다' △전주전통술박물관 '견우 방문주, 연화주안상' 및 연극 연임을 이용한 주안상 체험 등도 펼쳐졌다. 이와 관련 '2019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는 전주전통술박물관을 비롯한 7개 문화시설이 연합해 곡우·입하·하지·소서·칠석 등 5개 절기 일정에 따라 1개 문화시설이 절기에 맞는 주제를 정해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나눔, 길놀이 등 행사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4월 21일에는 곡우(穀雨, 4월 20일) 절기를 맞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백곡을 기를지개 농사비 내리니 한옥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소리내어 함께 어울려 놀아보자'를 주제로 풍농 기원 전주 삼라(3樂) 페스타

가 진행됐다. 이어 5월 17일에는 입하(立夏, 5월 6일)를 맞아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에 지역주민과 함께 절기주의 맛과 향을 향유하자'를 주제로 '한벽정 연유상곡수연'으로 선비의 풍류를 즐겼다. 6월 29일에는 하지(夏至, 6월 22일) 절기를 맞아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여름의 초입 하지에 비함을 일으켜 시원한 휴식을 안겨주자'를 주제로 '전주부채, 여름아, 폼짝 마!'가 진행됐으며, 7월 7일에는 소서(小暑, 7월 7일) 절기를 맞아 희명희문화관에서 '일손이 바쁜 작은 더위에 전주사람들의 흥과 오감을 자극하자'를 주제로 '더위를 달래는 혼불민간낭독회'가 진행됐다. 시는 올해 처음 진행된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를 통해 한옥마을 주민과 문화시설 등이 연대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물론, 원주민의 주도적인 행사참여를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인 만큼 향후 원주민의 문화해설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는 한옥마을 주민을 비롯한 전주 시민과 여행객, 문화시설 등이 함께 한옥마을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시설 특화사업을 꾸준히 발굴·확충해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착시 미술의 매력에 '풍덩'

익산예술의전당서 내달 22일까지 'AR트릭아이' 기획전시

익산예술의전당은 착시를 일으키는 미술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R트릭아이'를 40여 일간 기획전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변신한 미술관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적인 미술전시회에 비해 이해가 쉬운 전시로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평일 오후 1시와 3시, 5시에는 작품 해설(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을 위한 앱 설치, 관람방법 등은 미술관 직원이 현장에서 안



내한다. 한편 AR트릭아이는 4차 산업으로 떠오르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평면미술에 접목시켜 구성한 전시다. 착시 미술로 '트릭아트'라 흔히 알려진 평면미술 형태에 입체를 더한 것으로, 평면작품에서 미디어와 조형작품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김제 문화재 야행'이 무더위 속에서도 폭발적인 호응 속에 성료되었다.

김제 문화재 야행, 짜는듯한 폭염 속에서도 큰 호응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개최된 '김제 문화재 야행'이 짜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폭발적인 호응 속에 성료되었다. 문화재 야행은 조선시대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던 '김제관아'와 국립교육기관이었던 '김제향교'가 전국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된 곳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사적 제 482호인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로 북적거릴 만큼 번성했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점차로 슬럼화, 구도심지로 되어가고 있는 곳이다. 이에 김제시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김제 문화재야행'을 추진할 당시만 하여도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올까? 하는 우려와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앞섰으나, 막상 행사당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비문화와 농경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김제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모셔 김제의

설화와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종공연과, 아트장터, 손수 준비한 여러 음식들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김제군 관아와 향교를 비롯한 관내 문화재 85점에 대한 전시를 통해 문화재를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김제 시내 받거리가 이렇게 사람들로 모여든 것은 수십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지역주민들은 '김제 문화재 야행'을 통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날 참석한 김제시장(박준배) 또한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첫 선을 보이는 문화재야행인 만큼 잘된부분과 다소 부족한 부분이 공존하겠지만, '김제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선진문화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